

불교언론문화상 모집요강 발표

조계종 총무원(원장 지관)이 주최하고 불교언론문화상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7회 불교언론문화상 모집요강이 발표됐다.

불교언론문화상 시상부문에는 △ 불교언론문화상 대상 1작품 △ 불교언론인상 1인을 선정한다. 그 밖에 △ TV 부문 △ 라디오 부문 △ 신문 부문 △ 인터넷 부문에 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시상한다. △ 특별상에는 방송, 신문, 애니메이션, 뉴미디어 전 분야에서 우수한 작품 또는 작가, 연기자, 단체 등 3인이 선정될 예정이다. 작품 후보는 작품 개요서 1부와 함께 부문별 필수 기재사항과 제출자료를 첨부해 11월 5일까지 불교언론문화상운영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작품 후보자 추천은 관련 전문 분야 인사나 본인 추천 가능하다. 대상은 상패와 상금 500만원의 영광이 돌아간다.

시상식은 12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봉행될 예정이다. (02)745-5811 이은정 기자

다문화가정 캠페인 (사)지혜로운여성

“다름을 수용하고 다양성을 인정하겠습니다. 이주민을 국민 또는 사회 주체로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출신 국가별 차별의식을 버리겠습니다. 이주민과 친밀한 관계의 폭을 넓혀겠습니다.”

(사)지혜로운여성(이사장 이은영)은 10월 10일 서울 보신각 앞 광장에서 ‘다문화가정 이해증진 캠페인’을 펼쳤다. 여성부(장관 박희영) 공동협력사업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100여 시민과 함께 ‘행복한 다문화사회 만들기 실천 서약서’에 서약하며 이주민 인구 100만을 넘어선 시대에 차별의식을 버리고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존재로 인식 개선을 이끌었다.

‘언어와 문화는 달라도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작된 행사는 풍물패의 길놀이, 다문화 가정 현황 소개 전시회, 소책자 배포, 다문화를 상징하는 스티커 붙이기 등이 진행됐다. 세계 각국 전통 의상을 입은 여성결혼이민자 10여명과 즉석사진 찍기는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은정 기자

“8정도·10선법으로 정진합시다”

조계사, 세존사리탑·사적비 제막... ‘불교 1번지’ 위상 강화

한국불교 1번지 서울 조계사에 한국불교의 중흥과 국민안안을 발원하는 부처님 진신 사리탑이 우뚝 솟았다.

서울 조계사(주지 세민)는 10월 8일 조계사 경내에서 ‘세존사리탑’과 ‘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산 조계사 사적비’ 제막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녹원·원명·동춘·혜성·정무·혜정·밀운 스님,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동국대 이사장 정연 스님, 포교원장 혜종 스님, 동국대 오원배 교수, 다인건축 장광업 사장, 보광석재 김한열 사장 등 2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행사는 제막, 헌향, 삼귀의, 반야심경, 경과보고, 표창, 봉행사, 비문 낭독, 축사,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세민 스님의 경과보고에 이어 지관 스님은 종정 법전 스님을 대신해 조계사 주지 세민 스님, 보광석재 김한열 사장, 조계사 신도회 구자선 고문, 조계사 신도 김수정 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보광석재 상무 윤재

현, 동국대 미술학부 오원배 교수 등 8명에게 총무원장 표창패를 수여했다.

지관 스님은 봉행사에서 “과거 7층석탑은 1917년 일제시대에 세워져 일본풍의 석탑이라는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또 80여 년 근현대 한국불교 중심도량인 조계사에 사적비가 없음을 아쉽게 여겨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사적비를 세우기로 결심했다”며 “사부대중은 사리탑과 사적비 건립을 계기로 팔정도(八正道)와 십선법(十善法)으로 정진하며, 남북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대원행에 몰려섬이 없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이어 총무부장 원학 스님은 비문의 서두와 말미를 낭독하기에 앞서 “무심한 돌맹이에 지관 스님의 글썩 같은 글씨가 새겨져 역사에 길이 남는 금석문이 됐다”고 말했다.

명예원로의원 녹원 스님은 축사에서 “사리탑과 사적비 불사의 원만 완성을 축하하며 전 세계 사부대중에게 환희심을 안겨준 지관 스님의 원력에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며



새로 세워진 조계사 8각10층 세존사리탑.

“지관 스님의 높은 뜻을 새겨 탑을 경배하고 원력을 세운다면 세계 불교종중이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축사했다.

이번에 조성된 사리탑과 사적비는 2010년 조계사 창건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08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1년 8개월의 공

사기간과 18억여 원의 불사비가 투입됐다.

새로 세워진 8각10층 세존사리탑은 팔정도(八正道)와 십선법(十善法)을 상징하며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탑의 형태로 세워졌다. 탑의 외부에는 8여래상, 8보살상, 8신중상 등을 부조장했다. 내부에는 1913년 스리랑카로부터 전해진 부처님 사리 1과, 소형불상 1만 4000구, 1660년 은진 쌍계사 각판 <법화경> 7권 1장과 25조 가사 1벌 등을 안치했다.

조계종 근현대사가 담긴 사적비는 조계사 80년의 연혁이 정리됐다. 한·일 불교 통합 확장에 대응하여 진행된 한국불교 총본산 건립운동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역사가 담겼다. 총 25자(약 7.5m) 높이로 제작된 비문은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직접 작성한 것이다. 사적비의 받침 역할을 하는 귀부(기둥)와 이수(고달사원종국사탑비(高達寺元宗國師塔碑)의 귀부와 이수)를 바탕으로 조성됐다.

글=이상언 기자 사진=박재환 기자

불광출판사 창립 30주년

10일 기념행사, 수송동으로 사무실 이전

서울 불광사를 창건해 한국불교의 생활화·대중화·현대화에 앞장섰던 광덕 스님(1927~1999)의 문서포교 유지를 받들어 불사 출판에 앞장서온 불광출판사가 10월 10일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불광출판사는 10일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갖고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서 종로구 수송동(46-21, 3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한다고 밝혔다.

불광출판사는 기념행사로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 서점 4곳(교보,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에서 30주년 감사 대잔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불광출판사 30년의 스테디셀러와 ‘다시보아야 할 책들’을 소개하는 도서목록도 곧 제작할 계획이다.

1979년 10월 10일 출판등록한 불광출판사는 그동안 바라밀총서, 불교불학총서, 불광선문총서, 경전 등

불교학을 위한 서적은 물론 불교의 대중적 서적과 아동서적을 출판해 불교출판의 저변을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2월 월간지 ‘불광’이 지령 400호를 돌파한데 이어 올해 설립 30주년을 맞은 불광출판사는 30년 간 펴낸 책이 단행본만 280여 종, 총 450만부 정도가 판매됐다. 2008년 불교계 출판 매출 1위, 2009년 현재 불교계 출판사 중 최다 단행본 발행이란 성과를 내고 있다.

2004년부터 불광출판사를 맡아 운영하고 있는 지홍 스님(불광사 회주)은 “은사스님의 뜻에 따라 전법(傳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앞으로 어린이 청소년 도서 비중을 늘리고, 명상과 심리학 등 인접학문까지 출판영역을 확장하는 동시에 경전과 입문서 제작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성우 기자

생명나눔 창립 15주년 음악회

18일 불암사서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10월 18일 오후 3시 경기도 남양주 불암사(주지 일관)에서 ‘창립 15주년 기념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연에는 생명나눔 홍보대사인 방송인 김병조씨의 사회로 박현빈, 마야, 진시몬, 주병성, 문현주 등 유명가수들이 출연한다.

산사음악회에 앞서 오전 11시에는 ‘제9회 두산장학회 장학증서 전달식’이 불암사 대웅전에서 진행된 다.

2001년 설립된 두산장학회(이사장 일관)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불심으로 성실히 학업에 매진하는 학인과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전달해오고 있다.

이번 장학금 전달식에는 동국대, 중앙승가대, 해인사, 봉선사 등 학인 스님 11명과 동국대 재학생, 중·고등학생 등 23명에게 1700만원의 장

학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불암사에서는 산사음악회와 함께 의정부 송산노인복지관(관장 석봉)의 ‘노인복지가꾸마련 자비바자회’도 열린다. (02)734-8050 이은정 기자

17일, 길상음악회

서울 성북동 길상사(주지 덕현)에서 가을의 운치를 더해줄 음악회가 열린다. 길상사는 10월 17일 오후 7시, 18일 오후 2시와 7시에 ‘가을 길상음악회’를 개최하며 더불어 가을에 어울리는 미술작품들도 함께 전시한다.

길상사 주지 덕현 스님은 “부처님 도량에서 만나는 음악으로 많은 분들이 딱딱했던 마음을 풀고, 찌푸린 마음이 밝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02)3672-5945 이은정 기자

영봉(해종) 스님과 함께 나를 찾아가는 히말라야

행선 트레킹!

세계 최고봉 16좌 가운데 10좌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 히말라야 트레킹의 베스트 코스 Pikey봉. 해발 4080m를 걸어 오르는 동안 누구나 수행자가 되고 누구나 깨침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현대불교신문사가 창간 15주년을 맞아 네팔 카트만두 ‘세종 한국문화 언어교육원’과 공동 기획한 히말라야 행선 트레킹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봉(해종) 스님이 안내하는 이번 트레킹은 삶에 지치고 번뇌에 휩싸인 영혼에 부처님 정각의 대도량 히말라야의 기운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동참안내

11월 6일(금)~20일(금) 15일 : 일 시 ●
인천공항-카트만두-지리-시발리아-빈달-마일 : 코 스 ●
리-볼블레-Pikey 베이스캠프-Pikey 정상-준베 시-빈달-시발리아-지리-카트만두-인천공항
선착순 30명(16세 이상 가능) : 인 원 ●
287만원(비자비 5만원 별도) : 참 가 비 ●
국민은행 006-01-0785-361(현대불교) : 입금 계 좌 ●
10월 20일(화) : 접 수 마감 ●
10월 31일(토) 오후 3시 현대불교신문사 : 사전설명회 ●
02-2004-8233, 017-236-5769 임연태 부국장 : 문 의 ●
033-647-8848 영봉스님

공동주최
현대불교신문사 · 세종한국문화언어교육원

영봉(해종) 스님은

1990년 부처님오신날 세계최초 성직자 신분으로 히말라야 메라픽(6750m)을 등정해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이후 20여 년째 안나푸르나, 킬리만자로 등 세계 고산등정을 계속 하고 있다. 현재는 네팔 카트만두에서 ‘세종한국문화 언어교육원’을 설립 현지 가이드 셀카 포터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현대불교 창간 15주년을 축하합니다

마음 VS 뇌

마음을 훈련하라! 뇌가 바뀐다

Mind vs Brain

김성철 교수의 체계불학

100問 100答 “그렇다!” “아니다!”

장현갑 지음 / 292쪽 / 13,800원

최신간

● 출간 즉시 교보문고·YES24·인터파크·알라딘·인문부문 베스트셀러

장현갑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3층 T.(02)420-3200 F.(02)420-3400 http://www.bulkwang.or.kr